



"양반은 가는 데마다 상이요 상놈은 가는 데마다 일이라"

뜻: 어떤 사람은 놀러 가셔도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으며 편히 쉬는데, 다른 사람은 놀러 가서도 계속 일만 하게 되는 것처럼,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크게 다를 때 쓰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신분 · 차별 · 운명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양	반	은	↓	가	는	↓	데	마	다	↓	상	이	요
상	놈	은	↓	가	는	↓	데	마	다	↓	일	이	라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양	반	은	↓	가	는	↓	데	마	다	↓	상	이	요
상	놈	은	↓	가	는	↓	데	마	다	↓	일	이	라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			↓			↓				↓			
			↓			↓				↓			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ㅇㅅㅇ] [ㄱㄴ] [ㄷㅁㅅ] [ㅅㅇㅇ] [ㅅㄴㅇ] [ㄱㄴ] [ㄷㅁㅅ] [ㅇㅇㅇ]

웹에서 보기

